

정보통신 용어

▶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 기업과 기업 내부의 다양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간의 관계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간을 이루는 트랜잭션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개념이다.

▶ 쉐어드서비스(Shared Services) : 기업의 여러 사업 조직(Business unit)에 각각 존재하던 경영지원 부문-인사, 재무, 정보시스템, 노무 관리 등-과 비전략적 활동의 일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핵심 비즈니스 조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전략을 말한다. 즉 사업 조직은 전략적 활동에만 집중하고, 지원 부문이나 비전략적 활동은 쉐어드서비스 조직에 맡기는 것이다. 외부의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닌, 기업 내부의 다른 조직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이라 하여 인소싱(Internal + Outsourcing = Insourc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주간경제 1999.7.28 지원서비스의 공유전략 참조).

▶ T-커머스(T-commerce; TV 기반 상거래) :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인터넷TV가 필요하다.

인터넷TV는 셋톱박스와 연결, TV에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인 데, 컴퓨터를 몰라도 누구나 리모컨으로 조작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파와 케이블을 볼 수 있는 협소한 개념의 TV가 아니라 인터넷은 물론 금융업무 쇼핑 오락 교육 등의 모든 생활을 에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친숙한 제품인 TV를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느낀다는 게 장점이다.

▶ ‘파이버 채널’(Fiber Channel) : ‘광 채널’로 통하는 파이버채널은 서버와 스토리지 사이에 데이터 전송 통로가 되는 매체로, 스토리지영역네트워크(SAN, Storage Area Network) 방식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 동안 스토리지는 서버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거나 근거리통신망(LAN)에 연결하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한 반면 백업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해짐에 따라 속도 향상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파이버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버 채널’은 또 블록 단위가 아닌 프레임 단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저장장치 간 연결 거리를 수십 km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으로, 빠른 전송 속도와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켜 스토리지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파이버 채널 채용 스토리지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차세대 핵심 제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PAN(Personal Area Network : 개인거리통신망) : 이 개념은 처음 카드컴퓨터로 서로의 신상정보를 즉각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이었다.

미국의 IBM이 1996년 11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96추계컴덱스에서 공개한 통신망으로, 사람 체내의 염수(Saltwater)를 마치 통신회선처럼 전도체로 활용해 서로의 주머니나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컴퓨터로 통신을 하는 원리이다.

최근 들어 블루투스 기술이 각광을 받자 이 기술에 대한 와이어리스 PAN(personal area network)이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